

삼강행실도의 만화칸과 칸 사이 형태 분석

An Analysis on Shapes of the Gaps between Comics frames and Frames of 'The Three Bonds And The Morals in Human Relations'

박경철

조선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Keong-Cheol Park(manphist@hanmail.net)

요약

조선 시대 인쇄물인 삼강행실도는 세계 만화역사에서도 이른 시기인 1434년에 간행되었다. 삼강행실도에는 만화기호인 '만화칸'과 '칸과 칸 사이'가 등장한다. 만화기호인 만화칸의 상징성 못지않게 칸과 칸 사이도 만화기호에서 상징적 의미가 있다. 만화역사의 측면에서 보면 칸이 등장한 후, 칸과 칸 사이가 등장한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그 상징적 근거들을 찾아 밝힘으로써 국내 만화역사의 역사적 근거가 다져질 것이다.

삼강행실도에서는 칸과 칸 사이의 형식적인 유형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구름칸과 구름칸 사이'이며, 두 번째는 '구름칸과 배경칸 사이'이다. 삼강행실도의 두 가지 유형인 칸과 칸 사이는 현대 만화와 비교할 때 모양이나 연출에서 차이를 보이지만 칸과 칸 사이의 의미는 유사하다고 하겠다. 이처럼 본 연구는 삼강행실도의 칸과 칸 사이의 형태를 분석함으로써 국내 만화역사의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는 데 의미가 있다. 만화기호 중에서도 칸과 칸 사이에 초점을 맞추어, 삼강행실도의 칸과 칸 사이의 형태를 증명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 중심어 : 삼강행실도 | 만화칸 | 칸 | 칸새 |

Abstract

'The Three Bonds And The Morals in Human Relations' was published in Joseon Dynasty period in 1434, relatively early days of comic history in the world. The gaps between comics frames have symbolic meaning as comics frames have in the area of symbols of comics. After comics frames appeared, it was likely that the advent of the gaps between frames had its own value in the aspect of comics history.

Historical backgrounds of domestic comics would be built on firm base led by studying on the symbolic meaning of the gaps between comics frames.

Two forms of the gaps between frames were shown in 'The Three Bonds And The Morals in Human Relations.' The first form is the gap between cloud frames. The second is the gap between cloud frame and background frame. Although a little difference is found in the shape and display, two forms of the gaps between frames in 'The Three Bonds And The Morals in Human Relations' have a similarity to modern comics. This study is to demonstrate valid background for the domestic history of comics by means of analyzing the shapes of the gap between comics frames in 'The Three Bonds And The Morals in Human Relations.'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prove the meaning of the shapes of the gaps between comics frames 'The Three Bonds And The Morals in Human Relations', focusing the gaps between frames among symbols of comics.

■ keyword : | Three Bonds and the Morals in Human Relations | Comics Frame | Frame | Gutter |

I. 서론

1. 연구배경과 목적

스콧 맥클루드는 <만화의 이해>에서 칸과 칸 사이를 홈통(Gutter)으로 설명하면서, 수용자의 의도적이고 자발적인 완결성 연상행위는 만화에서 시간과 동작을 표현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라고 하였다[1]. 홈통은 물이 흘러내릴 수 있게 한 통으로써 통상 지붕에 설치하여 빗물이 아래로 내리게 한 통이다. 마치 두 개의 칸 사이가 두 건물 사이의 빗물을 받는 홈통처럼 보였겠다 싶다. 국내에서는 홈통을 칸새라고 한다. 칸의 사전적 정의는 ‘사방을 둘러막은 그 선의 안’이다. 사이는 ‘한 곳에서 다른 곳까지, 또는 한 물체에서 다른 물체까지의 거리나 공간’이며, 새는 사이의 준말이다. 칸과 칸 사이는 칸새를 구체적으로 풀어쓴 말이다.

세계 만화역사의 초기에는 칸 자체가 없거나 칸은 있지만 사이가 없는 이집트 맨나 무덤의 벽화나 1519년 코르테스가 발견한 멕시코의 ‘호랑이 발톱’에 대한 그림 등이 있다[1]. 이후 1793년에 간행된 제임스 길레이의 <영국인의 진보>에서는 만화기호로서의 구체적인 칸 외에도 칸과 칸 사이가 등장한다[2].

국내 만화역사에서는 칸과 칸 사이가 나타나는 인쇄물이 1434년에 간행된 <삼강행실도>이다. [그림 1]에서 ①과 ② 사이가 칸과 칸 사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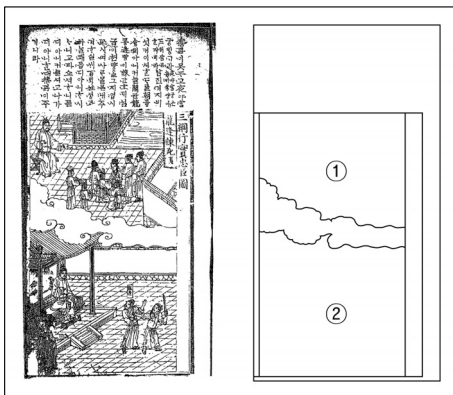


그림 1. <삼강행실도>와 칸과 칸 사이(p.75)

<삼강행실도>에 등장하는 칸과 칸 사이는 만화칸 못

지않게 상징하는 바가 크다. 현대적인 만화기호에서 칸은 중요한 만화기호이며, 칸과 칸 사이를 돕으로써 타매체와 확연히 구별되는 만화기호로서의 속성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삼강행실도>는 그림만 하더라도 회화나 일러스트레이션 등의 분야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지만, 본 연구자는 같은 대상의 <삼강행실도>를 만화의 관점에서 연구하는 것이 목적이다. <삼강행실도>를 한국만화의 원형이자 뿌리의 하나로 바라보고 있으며, 연구를 통해 국내 만화역사를 정립하는 일부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 특히 여러 만화기호 중에서도 칸과 칸 사이의 형태에 초점을 맞추고서 조선 시대의 칸과 칸 사이의 실증적 근거를 증명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2. 연구내용과 방법

조선 시대 <삼강행실도>를 만화의 관점에서 연구하면서 난관은 해석이었다. 만화에서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는데, 그림 그 자체만의 연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연구는 세종대왕기념사업회에서 1972년 간행한 <삼강행실도>로 시작하였으나 역주가 없는 한계를 느꼈던 중에 역주된 <삼강행실도>를 최근에서야 찾게 되었다. 본 연구는 세종대왕기념사업회에서 2010년 12월에 간행한 <역주 삼강행실도>의 역주를 바탕으로 칸과 칸 사이의 형태를 연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칸을 구분하기 위해서 <삼강행실도>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두 가지 칸 모양에 착안하여 구름 모양의 칸을 ‘구름칸’, 칸의 역할을 하는 배경들을 ‘배경칸’으로 용어를 사용하였다.

연구는 칸과 칸 사이의 형태에 대한 내용이다. <삼강행실도>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형태에는 ‘구름칸과 구름칸 사이’와 ‘구름칸과 배경칸 사이’가 있다. 첫 번째, ‘구름칸과 구름칸 사이’를 밝히고자 하였다. 두 번째, ‘구름칸과 배경칸 사이’를 밝히고자 하였다. 첫 번째와 두 번째에서는 내용적인 부분을 배제하고 형식적인 칸과 칸에 집중하였다.

연구방법은 첫 번째, <삼강행실도>의 역주를 참고하여 이야기에 맞게 순서를 찾으려 하며, 칸을 구분하고 칸과 칸 사이를 구분하였다. 두 번째, 칸 역할을 하는 선

만 사용하여 <삼강행실도>의 칸을 표시하였다. 그런 후 현대 만화의 칸에 비유함으로써 삼강행실도의 칸과 칸 사이의 형태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삼강행실도>의 그림 105개 중에서 칸과 칸 사이가 있는 그림으로 범위를 제한하여, 여러 사례를 찾기 위하여 매 다른 그림들을 사용하였다. 연구 주제가 만화칸이 아닌 칸과 칸 사이이기 때문에 칸과 칸 사이가 있는 만화만을 연구하였다. 즉 칸과 칸 사이의 사례에만 집중하고자 하였다. 또한, 만화에서 이야기라는 중요한 부분이 있음에도 이야기를 배제하고 만화칸의 순서만 표기하였으며, 만화칸과 칸 사이의 형태가 있다는 실증적 근거를 밝힘으로써 칸과 칸 사이의 존재 여부에 무게를 두었다.

II. 삼강행실도와 칸과 칸 사이의 형태

1. 삼강행실도의 만화칸

스콧 맥클루드는 만화를 의도된 순서로 병렬된 그림 및 기타 형상들이라고 정의하였다. 현대 만화에서는 만화칸이 상하 및 좌우로 병렬되는데, <삼강행실도>에서도 일부 나타나지만, 현대 만화의 단순하면서 직관적인 구조가 아니라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크다. <삼강행실도>의 칸은 현대 만화의 칸과 유사하지만, 모양에서는 많은 차이를 보인다. 현재의 칸은 통상 직사각형의 직선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에 반해 <삼강행실도>의 칸은 직선과 자유로운 선의 복합적인 형태를 주로 띤다.

<삼강행실도>의 칸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유형의 만화칸과 무형의 만화칸이 그것이다[3]. 유형의 만화칸에는 세 가지 선의 형태가 있다. 첫 번째는 모든 칸을 감싸는 직사각형의 직선이다. 직사각형의 외곽선이 내부의 자유로운 선과 연결되어 칸의 형태를 이룬다. 두 번째는 배경으로 등장하는 집, 담, 능선 등의 외곽선으로써 직선이거나 자유로운 선이다. 세 번째는 칸으로 사용되는 구름 모양의 선이다. 구름은 배경이나 칸으로 사용되는 경우로 나뉘는데, 칸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공간과 시간의 구분이 분명한 경우에 주로 사용

한다. 집이나 능선의 외곽선에 비해 구름은 의도적인 칸의 역할에 집중되어 있다. 현대 만화의 칸과 의미적으로는 가장 가까운 선이 구름 모양의 칸인 셈이다. 첫 번째의 직선은 현대 만화의 직선과 유사하다. 그에 반해 두 번째와 세 번째의 선은 <삼강행실도>의 특징적인 선이다. 요약하면 [그림 2]처럼 유형의 만화칸에는 ‘구름선의 만화칸(구름칸, ①)’과 ‘배경선의 만화칸(배경칸, ③)’ 및 구름선과 배경선의 만화칸(②)이 있다.

[그림 2]에서 오른쪽 그림은 왼쪽 그림에서 칸의 역할을 하는 선만 추출하여 칸을 표시한 것이다. <삼강행실도>는 반드시 모든 칸을 감싸는 직사각형의 직선(A)을 사용하는데, 이는 현대 만화의 직선과 유사하다. 반면에 B의 구름선과 C의 배경선은 현대적인 만화의 직선과는 다른 형태를 취하게 한다. 전체를 감싸는 직사각형의 직선(A)과 B, C의 선들이 만나 각각의 칸을 만든다. 이 칸들은 그림을 구분 지으며, 이야기 흐름에 맞게 칸에 배치된다. 단 <삼강행실도>의 칸의 배치에 따른 연출은 현대 만화와 많이 다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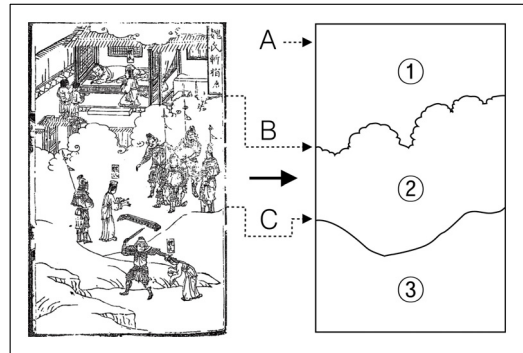


그림 2. <삼강행실도>의 칸 형태(p.175)

2. 칸과 칸 사이의 형태

<삼강행실도>의 칸과 칸 사이에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다. 첫 번째는 구름칸 두 개를 사이에 두는 ‘구름칸과 구름칸 사이’이다. 두 번째는 구름칸과 배경칸을 사이에 두는 ‘구름칸과 배경칸 사이’이다. 배경칸은 배경이면서 칸과 칸 사이의 역할을 한다.

2.1 구름칸과 구름칸 사이

[그림 3]의 가운데 그림에서 상단에 구름칸(①)과 하단에 구름칸(②)이 있으며, 둘 사이가 구름칸과 구름칸 사이(A)이다. 오른쪽 그림에서 B는 A를 현대 만화의 칸에 비유한 경우이다. A와 B의 형태적인 차이는 첫 번째, 구름 모양의 선이 현대에 와서 직선으로 기호화했다는 점이다. 두 번째, A에서는 칸과 칸 사이의 양 끝이 모든 칸을 감싸는 직사각형의 직선과 연결되어 있는데 반하여, B에서는 칸과 칸 사이가 완전히 떨어져 있다는 점이다.

그림을 구분하기 위하여 칸 기호를 사용하고 칸과 칸 사이에 '비워 보이는 공간' 기호를 사용한 것은 만화사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는 일이다. 미적인 것보다 정보 전달에 더 의미를 두었으며, 감상의 그림보다 이야기를 그림으로 서술하는 의도에 충실하였기에 가능한 일이다. 비록 현대 만화와 다른 구름 모양의 칸과 칸 사이지만 현대에 사는 우리의 눈에도 칸과 칸 사이임을 알 수 있는 기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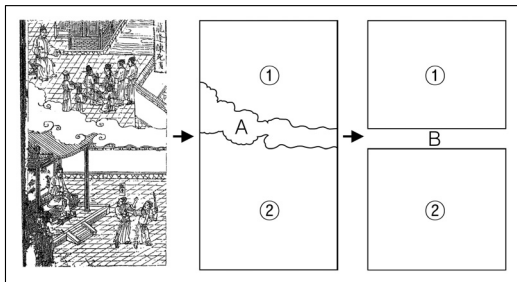


그림 3. 구름칸과 구름칸 사이 1(p.75)

[그림 4]에서 ①과 ② 사이의 A는 구름칸과 구름칸 사이이다. ①과 ②는 시간상으로는 비슷한 시간대의 배경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구름칸과 구름칸 사이만 지우면 하나의 그림인데, 구름칸과 구름칸 사이가 성문을 넓게 가로지름으로써 성 밖과 성 안으로 공간적 배경이 구분되어 두 개의 그림으로 나뉜다. 즉 '목숨을 건 신하의 도움(①)으로 탈출하는 왕(②)'의 이야기를 구름칸과 구름칸 사이를 통해 소통하고 있다. 이처럼 하나의 그림을 인위적인 구름칸과 구름칸 사이를 사용하여 두 개의 그림으로 구분한다는 점에서 칸과 칸 사이의 의미를

분명히 알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또한 ①과 ② 사이의 넓은 공간에 의해 그림이 잘린다는 점에서 미적인 추구보다 정보 전달의 측면이 강했음을 추정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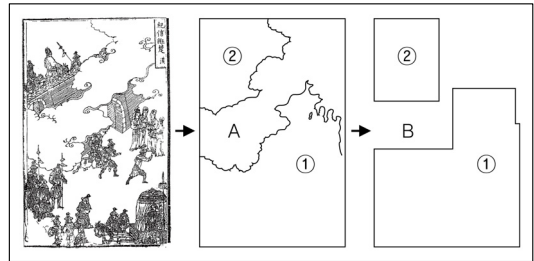


그림 4. 구름칸과 구름칸 사이 2(p.83)

[그림 5]의 칸과 칸 사이는 <삼강행실도>의 대다수 칸과 칸 사이와 다르게, 칸과 칸 사이가 연결된 특이한 형태이다. ①과 ③, ①과 ② 사이의 A1, ③과 ② 사이의 A2, ②와 ④ 사이의 A3은 연결된 칸과 칸 사이이다. 이와 같은 연결된 칸과 칸 사이는 <삼강행실도>에서는 찾기 어렵지만 현대 만화의 칸 연출(B1, B2, B3)과 유사한 면이 많다는 점에 그 의미가 있다.

③의 칸 왼쪽은 구름칸에 의해 안쪽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마치 칸과 칸 사이처럼 보이지만, ③의 칸 왼쪽을 칸과 칸 사이로 보지는 않는다. 이 사이는 '칸과 칸 사이'가 아니라 '원고지 외곽과 칸의 사이'에 해당한다. ③의 칸 오른쪽은 배경인 집이 칸의 역할을 하는 듯 보인다. 하지만 그 옆에 구름 모양의 작은 선을 사이에 그려 넣음으로써 구름으로 가득 있다는 의미를 소통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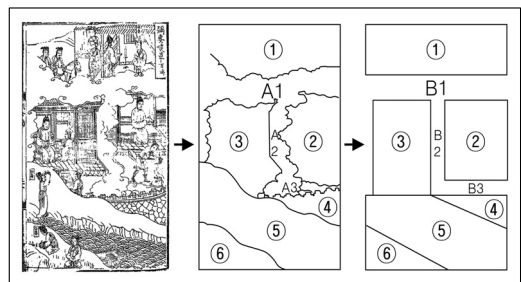


그림 5. 구름칸과 구름칸 사이 3(p.205)

2.2 넓은 의미의 구름칸과 구름칸 사이

[그림 6]에서 ①과 ② 사이의 A1은 구름칸이며, 현대 만화의 B1(사선)에 해당한다. 구름칸과 구름칸 사이인 A2에서 눈여겨볼 점은 ③의 칸에서 배경인 집의 외곽선이 A2의 아래 구름칸의 연장선으로 연결되어 칸의 일부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이때의 집은 구름칸 앞에 있는 배경의 의미가 강하기에 집 뒤에 있다고 연상되는 구름칸의 의미에 집중할 수 있다. 즉 넓은 의미의 구름칸과 구름칸 사이에 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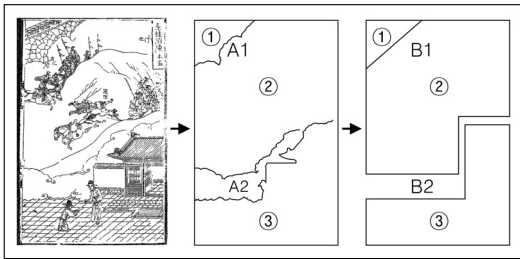


그림 6. 구름칸과 구름칸 사이 5(p.143)

[그림 7]에서는 구름칸과 구름칸 사이가 두 개다. ③ 및 ④와 ⑤, ⑤와 ⑥ 사이에는 구름칸과 구름칸 사이인 A2와 A1이 있다. A1의 오른쪽은 배경인 ⑤의 능선 외곽선에 맞닿아 있지만 [그림 6]의 A2처럼 구름칸의 연장선으로 의미를 넓힐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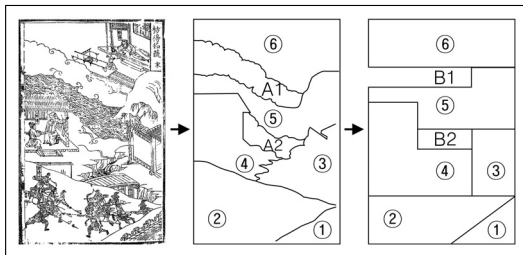


그림 7. 구름칸과 구름칸 사이 3(p.123)

A2의 칸과 칸 사이는 가운데에 배치되어 있으며, 양 끝은 집(③)과 집(④)의 외곽선에 연결되어 있다. ③과 ⑤, ④와 ⑤, ⑤와 ⑥은 일부만 구름칸과 구름칸 사이이지만 배경칸을 상위 개념으로서의 구름칸 아래 둘 경

우, 배경의 외곽선을 구름칸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는 셈이다.

2.3 구름칸과 배경칸 사이

구름칸은 칸의 역할에 충실하여서 공간적 배경과 시간적 배경의 구분을 분명히 한다. 배경칸은 배경이면서 칸의 역할을 하므로 구름칸처럼 분명한 구분보다는 칸과 칸의 연속성에 더 집중되어 있다. 구름칸과 배경칸이 만드는 칸과 칸 사이는 구름칸과 구름칸 사이와 비슷한 역할을 하지만 구름칸과 구름칸 사이보다는 구분이 덜한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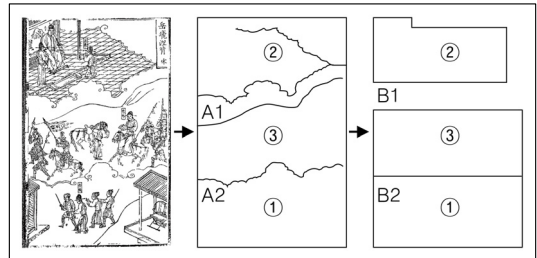


그림 8. 구름칸과 배경칸 사이 1(p.117)

[그림 8]에서 ①의 구름칸 A2는 ③과의 공간적 배경과 시간적 배경의 구분을 분명히 한다. 즉 연속적으로 ①과 ③ 사이에 있어야 할 ②가 ①②③의 순서가 아니라 ①③②의 순서로 떨어져 있다. 여기에서 구름칸 A2는 ①과 ③이 공간적·시간상으로 차이가 있음을 상징한다.

②를 감싸는 구름칸과 ③의 능선인 배경칸이 결합하여 구름칸과 배경칸 사이(A1)를 만든다. ②를 감싸는 구름은 칸으로서의 역할을 하며, 신하의 충성을 안 왕(②)이 '참된 충성'의 의미가 있는 기를 하사하여 신하를 명예롭게(③) 한다는 원인과 결과를 구름칸과 배경칸 사이를 통해 소통하고 있다. 또한 ②와 ③이 연속적이었는데도 칸과 칸 사이가 있는 이유로서 왕의 권위와 왕과 신하의 관계를 강조하기 위함으로 보이며, 공간적·시간상으로도 차이가 있다.

[그림 9]에서 ③과 ⑤ 사이의 A1은 구름칸과 구름칸 사이이며, ④와 ⑤ 사이의 A2는 구름칸과 배경칸 사이

이다. ③과 ④가 하나의 칸이었다면 ④의 능선이 구름 칸의 연장선 의미로 넓혀져 구름칸과 구름칸 사이가 되었을 것이다. A3은 칸이나 칸과 칸 사이가 아니며, 단지 배경 역할을 하는 구름기호에 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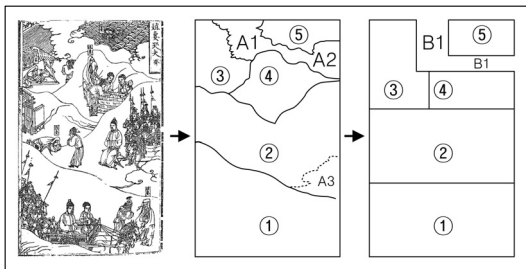


그림 9. 구름칸과 배경칸 사이 2(p.1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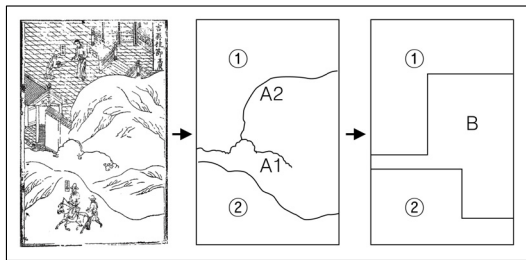


그림 10. 구름칸과 배경칸 사이 3(p.141)

[그림 10]에서 ①의 칸은 구름선(A1)의 연장선 역할을 하는 능선(A2)과 결합하여 일종의 구름칸이 되며, ②의 외곽선인 능선은 배경칸이 된다. 여기서 특징적인 점은 칸과 칸 사이가 여백이 아닌 배경(능선과 산)으로 채워져 있다는 점이다. 관직을 버린 신하에게 벼슬을 내렸으나, 두 왕을 섬길 수 없으니 늙은 어미 봉양하고 싶다(②)는 의견을 밝히고 낙향하는 신하의 ‘충절’의 의미를 큰 능선(혹은 바위)과 산을 통해 소통하고 있다.

현대 만화의 칸과 칸 사이인 B로 보면, 불필요해 보이는 넓은 사이이다. 하지만 <삼강행실도>에서는 구름칸과 배경칸 사이의 능선을 배경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며, 칸과 칸 사이에 배치한 배경이 <삼강행실도>와 현대 만화의 차이를 분명히 보여주는 부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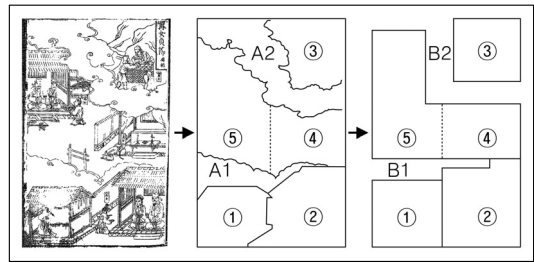


그림 11. 구름칸과 배경칸 사이 4(p.203)

[그림 11]에서 현대 만화의 연출에서 보면, ①②와 ④⑤ 사이에 들어가야 할 ③이 <삼강행실도>에서는 최상단에 배치되어 있다. 이 ③은 구름칸과 구름칸 사이에 의해 인접해 있는 ④⑤와 구분되어 상징적인 칸으로 작용한다. 이 상징성은 ‘묘’에 대한 유교적 의미가 있기에 순서와 무관하게 상단에 배치된다.

A1은 구름칸과 배경칸 사이이다. ①과 ②의 배경은 주인공의 친정이며, ④와 ⑤의 배경은 시댁이다. 이처럼 다른 공간적 배경은 구름칸과 구름칸이나 구름칸과 배경칸 사이에 의해 구분하기도 한다. ‘묘’가 가진 상징성을 강조하기 위해 구름칸과 구름칸 사이를 사용한 것처럼 친정과 시댁의 공간을 강조하기 위해 구름칸과 배경칸을 사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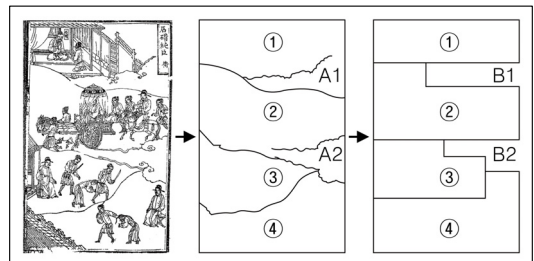


그림 12. 구름칸과 배경칸 사이 5(p.79)

[그림 12]에서 ①과 ② 사이의 A1은 구름칸과 배경칸 사이이며, ②③④ 사이에 있는 A2는 구름칸과 구름칸 사이이다. ①부터 ④까지의 칸은 모두 일부만 칸과 칸 사이에 해당한다. 현대 만화에서 대다수 칸과 칸 사이는 두 칸 사이의 간격이 같으며, 칸과 칸 사이의 간격에 따라 시간의 길이나 강조 등의 연출이 이루어진다. 반

면에 삼강행실도에서는 두 칸 사이의 간격이 자유롭다. 이는 직선보다는 구름칸과 배경칸에 의해 다양한 형태들이 생겨난 결과로 보인다.

<삼강행실도>의 구름칸과 배경칸 사이는 현대 만화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칸과 칸 사이이다. 현대 만화에서도 칸 안의 배경이 칸을 벗어나는 경우가 있으나, 벗어난 배경을 칸의 연장선상으로 보지는 않는다. 하지만 <삼강행실도>에서는 배경이 구름과 연결되어 칸의 연장선상이 된다는 점에서 기호적 의미가 남다르다고 하겠다.

III. 결론

<삼강행실도>에 나타나는 칸과 칸 사이는 현대 만화의 칸과 칸 사이와 차이가 있다. [그림 13]은 [그림 10]에서 현대 만화의 칸으로 비교하기 위한 그린 그림이다. 첫 번째, 형태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칸의 모양 때문이다. <삼강행실도>의 칸(A)이 구름과 집, 능선 등 그림의 외곽선을 사용하는 반면에 현대 만화(C)에서는 그림을 칸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직선을 사용한다. 이처럼 칸의 모양이 다르므로 자연스럽게 칸과 칸 사이의 모양이 다를 수밖에 없다.

두 번째, 현대 만화(C)에서는 칸과 칸 사이가 모두 떨어져 있어서 공간이 생긴다. 또한, 수평선과 수직선을 사용하기 때문에 칸과 칸 사이의 간격이 같다. 이에 반해 <삼강행실도>에서는 칸과 칸 사이의 양 끝이 모든 칸을 감싸는 직사각형의 직선에 접하거나 옆의 칸 배경과 접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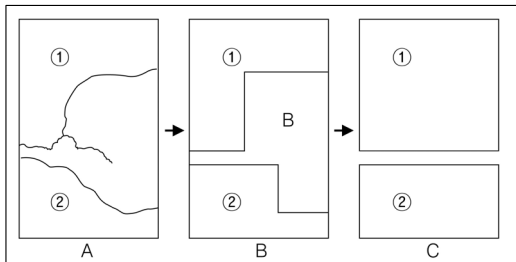


그림 13. 삼강행실도와 현대의 칸과 칸 사이 비교

현대 만화의 수평선과 수직선의 칸과 칸 사이가 아니라 <삼강행실도>에서는 구름 모양의 선과 구름 모양의 선 사이의 자유로운 선의 칸과 칸 사이이며, 구름 모양의 선과 집이나 능선 사이의 자유로운 선의 칸과 칸 사이이다. 칸 모양이 다르고 그로 인해 칸과 칸 사이의 모양이 달라지기 때문에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에 맞는 칸과 칸 사이의 연출은 현재의 대중이 당연시하는 기호와 너무도 달라 보이는 것이 당연하다. 특히나 구름과 배경을 칸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현대 만화에서의 일련의 연속된 순서로 칸을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림의 구성요소를 어떻게 배치하여 그랬나에 따라서 순서가 달라진다는 점에서 현대 만화와 차이가 드러난다.

특이한 점으로는 후대에 간행된 <속삼강행실도>에서는 칸과 칸 사이가 한 번 나오는 데 반하여[4], [삼강행실도]에서는 p.75, p.79, p.83, p.121, p.123, p.133, p.137, p.141, p.143, p.151, p.159, p.171, p.177, p.179, p.183, p.185, p.187, p.193, p.203, p.205, p.209, p.215의 22회에서 나타나고 있다[5]. 어떤 이유로 말미암아 칸과 칸 사이의 용도를 잘 사용하였던 <삼강행실도> 이후 발전하지 못하고 <속삼강행실도>에서는 도태되고 만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삼강행실도>에서 칸과 칸 사이가 두 가지로 나뉘어 살펴보았다. 첫 번째는 구름칸과 구름칸 사이이며, 두 번째는 구름칸과 배경칸 사이이다. <삼강행실도>의 구름칸과 구름칸 사이와 현대 만화의 평행한 두 직선의 칸과 칸 사이의 차이는 시대를 뛰어넘어 한 자리에서 보기에는 이질감이 느껴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차이는 모양에서의 차이 지 의미에서의 차이를 포함하지는 않는다. 조선 시대의 칸과 칸 사이가 현대 만화의 칸과 칸 사이와 모양이나 연출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만 그 의미는 유사하다고 하겠다.

현재의 관점에서만 고집하고 보면 삼강행실도의 칸과 칸 사이는 이해할 수 없고 수용할 수 없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삼강행실도>의 칸과 칸 사이를 현대 만화의 칸과 칸 사이(수평선과 수직선)로 비교한 이유는 당시의 시대 상황에 맞게 우리가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기를 바라서였다.

국내 만화역사의 근거를 실증하여 밝히는 시도를 해

봄으로써 우리 안에서 동의를 받고 싶은 것이 사실이다. 그렇기에 조선 시대 인쇄물인 <삼강행실도>에서 풍부한 칸과 칸 사이의 사례가 나타난다는 점은 우리 역사에서 칸과 칸 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음이다. 이는 만화역사를 연구하는 견해에서 너무도 반가운 일이라 하겠다.

부 교수

- 1997년 ~ 1999년 : 포토샵 5권 저술(영진 크라운출판사)
 - 1995년 8월 : SICAF 애니메이션 신인상
- <관심분야> : 디자인, 만화, 영상, 콘텐츠, 캐릭터

참 고 문 헌

- [1] 스크트 맥클루드, *만화의 이해*, 시공사, pp.68-101, pp.18-24, 2002.
- [2] 로저 새빈, *만화의 역사*, 글눈그림밭, p.13, 2002.
- [3] 박경철, “속삼강행실도의 만화칸 기호 연구”, 한국콘텐츠학회, 제11권, 제10호, pp.156-164, 2011.
- [4] 정우영, *역주 속삼강행실도*, 한국문화사, p.318, 2008.
- [5] 역주 김정수, *역주 삼강행실도*, 세종대왕기념사업회, 2010.
- [6]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삼강행실도*,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72.
- [7] 이원복, *회화, 술*, 2005.
- [8] 월 아이스너, *만화와 연속예술*, 비즈앤비즈, 2009.
- [9] 최정란, *조선시대 ‘행실도’의 목판화 양식에 대한 연구*, 대구카톨릭대학교, 2009.

저 자 소 개

박 경 철(Keong-Cheol Park)

정회원



- 1995년 2월 : 공주문화대학 만화예술과
- 1998년 2월 : 서울산업대학교 시각디자인학과 미술학사
- 2005년 2월 : 공주대학교 만화예술학과 미술학석사
- 2011년 2월 : 공주대학교 만화학과 만화학박사
- 2006년 9월 ~ 현재 : 조선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